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본 <이현경전>의 성격과 의미

박 양 리*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이현경전>의 여성영웅소설사적 의미 |
| II. <이현경전>의 초기 여성영웅소설적 성격 | IV. 맺음말 : 여성영웅소설 연구에 관한 문제 제기 |

국문초록

이 글은 초기여성영웅소설로서 <이현경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여성영웅소설의 사적 맥락 속에서 이 작품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현경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군담을 포함한 입신양명담, 다양한 각도에서의 신분노출담, 혼사갈등으로 인한 남녀이합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현경전>에서 주인공 현경이 남장을 통해 과거급제 - 출정입공 - 지위극대화의 과정을 이루고 있다. 이 때 군담은 후대의 작품과 달리 하나의 흥미요소로 부각되지 않고 담백하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그러지고 있다. 후대의 여성영웅소설의 경우 신분노출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 단선적으로 제시되지만, <이현경전>에서는 지루할 정도로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작품 전체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현경이 왜 여성으로 복귀해야 하는가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타의 여성영웅소설이 입공서사와 남녀이합 서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비해 <이현경전>에서는 남녀이합이 작품 후반에 처음 등장하며, 혼사갈등을 중심으로 한 부부대립담으로 치환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경의 영웅성은 온전하게 부각되는데 반해 남자주인공인 장연은 졸렬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현경전>의 여성영웅소설사적 의미는 몇 가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여성영웅소설에 있어서 핵심요소인 입신양명구조가 <이현경전>에서 본격적으로 완성되었다. <이현경전>은 ‘권신에 의한 겁탈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 시대의 작품인 <설저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설저전>에서 나타나지 않던 군담을 포함한 완벽한 형태의 입신양명구조가 <이현경전>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둘째, 초기 여성영웅소설에서 오히려 진전된 여성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현경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여성의 삶으로 복귀한 <설저전>의 주인공에 비해 <이현경전>의 주인공은 자신의 영웅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는 곧 여성 자의식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셋째, ‘남녀불균형의 미학’을 온전히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현경전>의 남 주인공 장연은 모든 면에서 현경에 비해 모자라고 용렬한 성품이다. 심지어 남녀 주인공 사이의 직접적인 대결에서도 현경은 우위에 자리한다. 이는 초기여성영웅소설이 오히려 후대의 작품에 비해 남녀불균형의 미학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이현경전, 여성영웅소설, 설저전, 남녀불균형의 미학, 입신양명,

신분노출, 남녀이합

I. 머리말

여성영웅소설에 관한 연구는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문소설이 그러하듯 여성영웅소설 역시 개별 작품에 대한 정확한 창작년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영웅소설의 형성과 전개, 작품들 사이의 선후관계에 대한 논의는 분분한 편이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여성영웅소설의 발생 시기를 18세기 말 이후로 파악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영웅소설은 영웅소설의 변이형태 혹은 후대적 변모과정 속에서 출현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¹⁾ 또한 시대가 불분명한 여성영웅소설의 편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성이라는 의식적 측면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여성의식이 강할수록 후대의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주도적이었다.²⁾

그런데 최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비교적 후대의 작품으로 인식되던 <설저전>과 <이현경전>의 창작연대가 각각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으로까지 소급되면서³⁾, 이들 작품을 후대적 모습이라고 규정하던 근

1) 여성영웅의 형성배경을 영웅소설의 후대적 변모로 보는 관점, 국문 장편소설이 장편가문소설로 확대 발전하는 가운데 발생한 일탈로 보는 관점으로 나눠지만, 둘 다 18세기 말 이후로 여성영웅소설의 형성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186-187쪽). 이 논문에서 정준식은 기존 연구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여성영웅소설의 형성시기를 보다 앞당기고자 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 대표적으로 전용문의 논의(전용문, 『한국여성영웅소설의 연구』, 목원대 출판부, 1996)를 들 수 있다.

거들에 대한 설득력이 약화된 것이다. 이제 종래와는 다른 시각에서 여성영웅소설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현경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초기적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이현경전>에 대한 논의는 사재동이 처음 서지적 정보를 언급⁴⁾한 이후 여성영웅소설의 후대적 변화 양상을 살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의식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 “여성의식이 진전된 19세기 후반의 작품”⁵⁾이라거나, 여성영웅소설사에 있어서 비교적 후대의 구조인 “남성지배형 여성영웅형의 작품”⁶⁾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시말해 <이현경전>은 주인공 현경의 여성의식이 비교적 강하고 그 확약의 정도가 남자주인공에 비해 두드러진다는 점, 그리고 구성이 여타의 여성영웅소설과 변별된다는 점에서 후기 여성영웅소설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대에 유통되던 여러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평가하고 있는 일종의 메타소설인 <여와전>에 ‘이현경’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현경전>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와전>에서 이현경은 황룡묘 호위장군으로 문무를 겸전하고 천성이 호쾌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⁷⁾ <여와전>은 18세기 말 필사된 것으로 밝혀진 <옥재원야합기>에 그 작품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18세기 후반 이전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소설이다.⁸⁾ 이는 곧 <이현경전>이 지금까지의 논의와 달리 오히려 초기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서지적 증거

3) 최호석, 「<설계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4) 사재동, ‘이현경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54쪽.

5) 강진옥, 「이현경전(이학사전) 연구-婦道와 자아실현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인간적 삶의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6) 전용문, 「<이학사전>의 구조와 인물성격 연구」, 『고소설연구』 제3집, 한국고소설학회, 1997.

7) 지연숙, 앞의 책, 130쪽.

8) 위의 책, 94쪽.

가 되는 것이다.

<이현경전>의 형성시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주로 여성영웅소설 전반에 대해 언급하는 중에 이 작품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곤 하였다.⁹⁾ 그러면서도 이른 시기의 여성영웅소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의 초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현경전>에 주목하여, 지금까지의 먼저 지금까지의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현경전>이 지닌 초기 여성영웅소설로서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곧 <이현경전>이 여타의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과 비교하여 어떤 동질성을 지니고 또 어떤 독특한 개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또한 나아가 그 결과 도출된 <이현경전>의 성격이 여성영웅소설의 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여성영웅소설의 초기적 면모를 밝히는 작업의 시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II. <이현경전>의 초기 여성영웅소설적 성격

<이현경전>의 이본은 현재까지 필사본 5종 활자본 2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직의 최근의 연구¹⁰⁾에 따르면 현재 완본으로 존

9)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진은진, 「여성 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02; 강화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경성대 박사논문, 2004; 전이정, 「여성영웅소설 연구 - 서사 단위와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2009.

재하는 <이현경전>의 이본 가운데 비교적 오탈자가 적은 사재동 교수 소장 94장본¹¹⁾을 선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현경전>은 각 이본들 사이에 세부 장면이나 인물의 묘사에 있어서 약간의 변개는 있지만 주요 서사단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¹²⁾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재동 A본¹³⁾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현경전>의 서사단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명 가정연간 청주 땅에 사는 이부시랑 이영도가 딸 현경과 아들 연경을 두었는데, 현경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남자의 기상을 지녔다.
2. 현경이 스스로 남장을 하여 아들의 도를 행하고자 하니, 부모가 처음에는 책하다가 후일 장성하면 여도를 행할 것을 믿고 허락하다.
3. 현경 나이 10세에 부모 구물하고 현경은 3년간 시묘살이를 한다.
4. 현경이 인근의 귀공자들과 교우하며 학업을 닦았는데, 그들의 재주가 모두 현경에 미치지 못하였고, 다만 장연이 현경과 재주가 비슷하고 뜻이 맞아 친하게 지낸다.
5. 현경과 장연이 함께 과거를 보았는데, 현경이 장원을 하고 장연이 부장원을 한다.
6. 장연이 늘 현경과 같은 여자가 있다면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니 현경은 내심 불편해하며 삼십 이후에야 취처하겠노라고 선언한다.
7. 현경이 감찰원 도어사가 되어 국구 왕세충이 유부녀를 겁탈한 사실을 밝혀내 천자에게 고하고 벌을 준다.
8. 창기 위영이 현경을 흠모하여 섬기고자 하나 현경이 거절한다.

10) 이병직, 「<이현경전>의 이본 연구」, 『한국문학논총』 53집, 한국문학회, 2009.

11) 이후 사재동 A본으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12) 이병직, 앞의 논문, 187쪽.

13) 귀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사재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황숙 남경 주왕이 모반하자 현경이 순무어사로 출전하여 용맹과 지략으로 남경 주왕을 잡아 죽인다.

10. 남경 주왕과 공모한 남만선우가 공격하자 현경이 대원수, 장연이 부원수로 출정하여 공을 세우고 각각 병부상서 겸 청주후, 예부상서 겸 기주후로 봉해진다.

11. 현경과 장연의 꿈에 이시랑이 나타나 천정지연을 맺으라 하니, 장연은 현경의 성별을 의심하고 현경은 이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는다.

12. 유모가 장연을 찾아가 현경의 남장 사실을 알리고 혼례하기를 간청하고, 이에 장연이 현경에게 따져 물으나 현경은 완강하게 부인한다.

13. 현경이 병이 위중하자 어의가 찾아와 진맥하고 여맥임을 눈치 챈다.

14. 현경이 동생 연경의 충고에 따라 천자에게 상소를 올려 남장 사실을 밝히고, 천자는 오히려 경탄하며 벼슬을 그대로 내어준다.

15. 장연이 현경이 여자임을 알고 다시 청혼하지만 거절당한다.

16. 천자의 계책으로 장연과 현경이 성혼하나, 현경은 동침할 것을 거부한다.

17. 장연의 첩 위영이 무례하게 굴자 현경이 곤장 삼십대로 다스렸으나, 위영이 오히려 시모인 여부인에게 현경을 모함하고 현경은 시가를 나와 본가로 돌아간다.

18. 위영이 현경에게 자객을 보내나 오히려 현경이 그를 물리치고 황제에게 그 사실을 고하여 위영은 참수되고 장연 부자는 문책 당한다.

19. 현경이 장연 부자의 계속된 간청으로 시가에 돌아오나, 장연과는 동침하지 않는다.

20. 고소저가 장연을 사모하여 병에 걸리자 현경이 그녀를 장연의 후처로 들일 것을 허락한다.

21. 장연이 현경에게 동침할 것을 눈물로 호소하자, 성혼 7년만에 이를 허락한다.

22. 현경 부부가 자녀를 많이 낳고 부귀 화락하다가 나이 팔십에 나란

히 백학을 타고 승천한다.

이상의 서사단락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현경이 남장 후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이 청주 후까지 올라가는 1~10단락까지이다. 두 번째 부분은 11~14단락까지로 현경의 남장이 들통이 나는 신분노출담이 중심이 된다. 마지막 부분은 장연과의 혼인 이후 발생하는 갈등과 그 해결을 그리고 있다. 이들 세 부분은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 거의 대등한 모습을 보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서사가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 여성영웅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입신양명담과 군담의 작품내적 기능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여화위남은 드문 소재가 아니다. 이미 <구운몽>의 적경홍, <숙향전>의 숙향이 자신에게 닥친 불의의 화를 피하기 위해 남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여화위남 모티브가 여성영웅소설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여화위남 후 보여주는 여주인공의 활약 때문이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주인공은 여화위남을 통해 규방으로만 한정되어있던 자신의 능력을 외부 세계에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성영웅소설의 이와 같은 여화위남이 여주인공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매개로 보이지만 실상은 역설적으로 남성중심의 전통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여 여성성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한계로 작용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어 왔다.¹⁴⁾ 그

14) 이인경(이인경,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5』, 중앙문화사, 1995)과 장시광(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332-334쪽)의 논의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러나 어찌되었든 여성의 남장은 “그것이 남성성의 모방이든, 여성적 능력 발현의 도구이건 간에 여성의 영웅적 면모를 강하게 드러내는 장치”¹⁵⁾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들은 그 원인이 자발적이든 혹은 억혼이나 난리로 인한 비자발적이든 일단 남장을 한 후에는 단순한 피화(避禍)를 넘어서 스스로 지닌 능력을 발휘하는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영웅적 면모는 흔히 ‘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를 입신양명구조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즉, 여성영웅소설에서 여화위남은 입신양명구조와 결합함으로써 여성영웅소설을 다른 소설 유형들과 변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화위남과 입신양명이 순차적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이현경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구조와 동일하다. 다음은 현경이 여화위남을 결심하는 장면이다.

현경소제 더욱 괴특하야 몸은 여지나. 쓰전 문득 남즈의 지나미 잇서 삼세부터 글익기를 힘써 지화일일당진흐니 팔구세의 다다논 통치아인곳 이 업셔 붓술 잡으미 붓아리 문장을 일우고 입을 여러 고금을 의논흐미 첨첨흔 문당이 양강디회를 헤치논듯흐니 부모싱시의 그 직문을 두긋기 나 녀즈되여 녀머 활발흔줄 깃거아이흐냐 경계왈 네 여즈되여 맛당이 여공을 다사릴 짜람이여날 남즈의 사업을 흐른 엇지미요 형경이 응성디 왈 사람이 세상의 나서 성인의 유풀을 팔와 질흐의 문당을 일우고 입가 온디 직언적논을 머금어 스군스친흐미 쾌하니 소예 비록 여즈나 쓰즌 세상의용열흔 남즈을 웃논이 원컨디 예복을 벗고 남장으로 부모를 피셔 죽이도를 흐리이다. (上 1-2a)

철이 들면서 점점 그 재주를 드러내는 현경을 두고 그녀의 부모는 여

15) 진은진, 앞의 논문, 78쪽.

16) 정준식, 앞의 논문, 10쪽 참조.

자가 너무 활달한 것이 아닌가 하여 근심한다. 이에 대해 현경은 오히려 스스로 여공을 폐하고 남장을 할 것을 주장한다. 사군사친을 하고 남자의 도를 행하고자 한다는 현경의 주장은 그녀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며 동시에 이후 현경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단서라 할 수 있다.

여화위남을 통해 여성의 영역을 넘어 남성의 영역으로 진입한 여주인공에게는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에 그 이름을 날릴 것이 기대된다. 현경 역시 이러한 기대에 걸맞게 문무양면에서 남성을 능가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현경이 보여주는 영웅적 활약상은 여러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급제를 통해 정치 일선이라는 남성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 현경에게는 세 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현경은 월등한 능력으로 각각의 과제를 수행한다. 그리고 현경이 능력을 발휘함에 따라 그에 걸맞게 지위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관문은 과거이다. 현경은 교유하던 공자들 중 단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심지어는 동류들의 답안을 대신 작성해주는 여유를 보여주면서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다. 과거 급제를 통해 현경은 비로소 공적인 영역에 성공적으로 편입하게 된 것이다. 과거급제로 한림어사 겸 도찰원 도어사의 직을 제수받은 현경은 먼저 국구 왕세충에 의한 겁탈사건을 해결한다. 왕세충에게 겁탈당한 유안의 처 경씨가 억울함을 토로하자 황제에게 소를 올려 왕세충을 탄핵한 것이다. 그 일로 조정과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게 된 현경에게 황제는 직접 황숙인 남경 주왕의 모반 문제를 의논하기에 이른다. 이 일 역시 현경의 선견지명으로 자객의 침입을 미리 예견하고, 나아가 현경이 대원수 서운을 보필하는 순무어사로 전쟁에 참여하여 직접 남경 주왕의 목을 베면서 모반사건을 해결한다. 곧이어 남경 주왕과 함께 모반을 공모했던 남만 선우의 정벌이 이어지는데, 이때 현경은 노모의 병으로 사직한 서운을 대신하여 도원수의 지위에 오른다. 그리고 부원수 장연을 거느리고 남만을 정벌한

다. 이 공으로 현경은 대사마 병부상서 겸 청주후라는 신하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제후의 위에 봉해진다. ‘과거급제 - 출정입공 - 지위극대화’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려진 현경의 입신양명 과정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군담이다. 특히 후대의 다른 여성영웅소설과 그 성격이 변별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전쟁은 남성다움이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사회적 행위이다. 무력이 남성의 상징이라고 볼 때, 그러한 무력으로 자신의 영웅성을 드러내는 여성의 존재는 기존의 통념을 깨트린다.¹⁷⁾ 일반적으로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장한 여장군의 군담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연구자들 역시 작품 속의 군담의 구조 및 성격에 주목하기도 했다. <홍계월전>에서 군담은 계월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임과 동시에 작품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의 해결책 구실을 하기도 한다. 군담을 통해 부모의 원수를 갚기도 하고 나아가 헤어진 부모와 상봉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은 작품 후반부에 군담이 나타나며, 그 군담을 통해 혹은 그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특징이 있다.¹⁸⁾

<이현경전>에 있어서도 군담은 존재한다. 군담을 포함한 입신양명구조를 온전히 그려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¹⁹⁾ 그러나 <이현경전>의 군담은 작품의 초반에만 등장하고, 중반 이후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작품 전체의 갈등 - 해결 구조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군담의 모습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현경전>의 구조가 영성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였다. 그러나 <이현경전>이 초기 여성영웅소설임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군

17)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41쪽 참조.

18) 류준경, 앞의 논문, 8쪽 참조.

19) 군담을 포함하는 입신양명구조가 가지는 의미에 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다만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의 관습과 비교하여 <이현경전>에 나타나는 군담의 양상이 어떠한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담의 형태야말로 여성영웅소설의 초기적 면모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후대의 여성영웅소설, 특히 통속적 독서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19세기경의 여성영웅소설에 있어서 군담은 하나의 주요한 흥미소이며, 보편적인 모티프로 존재했다. 군담이 군담 그 자체로 흥미소로 부각되었기에 통속적 영웅소설과 마찬가지로 여성영웅소설 역시 군담에 수반되는 다른 모티프들이 추가되어 군담 자체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수학과정에서 뒤에 이어질 군담을 염두에 두고 무술을 수행한다거나, 우연한 기회에 천하의 보검이나 군마를 얻는다든가 하는 모티프가 존재한다. 또한, 단순히 창검을 휘두르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천문을 읽고 적장을 속이는 신묘한 도술을 발휘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현경전>에서는 보검이나 군마 획득, 도술대결 등의 삽화는 보이지 않는다. 현경이 남경 주왕의 목을 베는 장면은 호쾌하지만 후대의 작품에 비하면 담백하게 보인다. 이는 <이현경전>에서는 아직 군담이 개별적 흥미소로 소설 속에서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이현경전>에서 관심은 현경이 입신양명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 그렇게 본다면 군담은 입신양명의 하위요소로 문(文)과 대응되는 무(武)의 영역에서 말 그대로 문무겸전한 현경의 모습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현경이 보여주는 영웅적 자질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질은 모두 공직에 출사하는 사대부들에게 기대되는 자질이기도 하다. 사대부들의 목표는 우선 과거를 통해 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 사대부는 일차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때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송사사건의 해결을 통해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는 일이다. 현경의 겁탈문제 해결은 바로 목민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란이 벌어졌을 때 사대부들에게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낼 자질이 요구되기도 한다. 안으로는 내부의 모반을 막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것은 ‘출장입상’의 이상을 실현하

는 일이기도 하다. 남경 주왕의 모반과 관련된 두 차례의 일련의 서사는 바로 이러한 내외외환을 다스리는 사대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신분노출에 관한 다양한 모색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이 비록 영웅의 면모를 만천하에 보여주었으나 그것이 본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탄로 나는 것은 피치 못할 수 순이다.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장한 여주인공은 그 시기는 각기 다를지언정 결국은 여성의 신분이 노출된다. <홍계월전>의 경우 계월이 우연히 득병하자 어의가 진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여성임이 밝혀진다. <김희경전>에서는 천자가 설빙을 부마로 간택하고자하여 설빙이 표를 올려 스스로 여자임을 밝힌다.

<이현경전>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신분노출담이 등장한다. 그런데 여타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주인공의 신분노출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 비교적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며 분량 면에서도 소략한 것에 비해 <이현경전>에서의 신분노출은 지루할 정도로 복잡하며 작품 전체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봉건사회에 있어서 남성의 삶에 비해 여성의 삶은 억압적이다. 사회적 활동은 오직 남성에게만 허용된 자유였다. 현경은 남장을 통해 최고의 지위에 올라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여성임을 밝히는 일은 남성으로서 이루어놓은 지금까지의 삶, 즉 극대화된 지위 전부를 포기하는 일이다. 현경이 다시 여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경 스스로 말하듯 ‘차마 못할 일’이며 ‘원치 않는 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경전>에서는 왜 여성으로 복귀해야 하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완고한 현경이 여성으로 돌아가는 개연성이 확보되는가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현경의 여화위남은 누차 언급했다시피 현경 본인의 의지였다. 현경의

부모는 오히려 “네 여즈되여 맞당이 여공을 다사릴사람이여날 남즈의 사업을 흐른 어편일이오”²⁰⁾라고 걱정을 했으며, 다만 “이 아히 나히어려 여도를 몰나 이려하니 아직 저 흐는티로흐야 년괴츠면 제 스스로 붓그 러들거시라”²¹⁾ 하며 일시적으로 남장을 용인했을 뿐이다. 결국 이러한 부모의 반대는 자연스럽게 입신양명 이후 현경의 여성으로의 복귀를 재촉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로 제시된다. 현경의 아버지인 이형도가 먼저 장연의 꿈에 나타나 현경의 정체를 밝히고, 다시 현경의 꿈에도 등장하여 여도(女道)를 따를 것을 종용하는 것은 애초에 이미 그 단서가 제시되었던 것이다. 효는 현경이 지켜야 할 실천윤리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뜻을 무시한다는 것은 현경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사실 형도의 현몽으로 인해 현경의 정체를 의심한 장연의 공세는 현경에게 그다지 문제될 일은 아니다. 애초에 장연이 현경을 의심하여 그녀를 떠보았을 때, 현경은 그를 크게 힐책하고 돌려보낸 바 있다. 현경을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불효라는 윤리적 압박감이라 할 수 있다.

현경이 장연과의 공방 와중에 병을 얻은 것은 어쩌면 자신을 압박하는 근심 때문일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득병으로 인해 현경이 여성으로 복귀해야하는 또 다른 필연적인 이유가 제시된다. 바로 어의의 진맥이다. 현경의 병이 위중함을 근심한 황제는 친히 어의를 보내어 현경의 병을 다스리게 하는데, 어의가 현경의 맥이 여맥임을 알게 된 것이다. 현경이 어의를 겁박하여 황제에게 여맥을 고하지 못하게 막기는 했으나 현경 스스로도 알고 있듯이 이는 임시방편일 따름이다.

현경이 신분을 밝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남동생인 연경의 조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연경은 네 가지 이유를 들어 현경에게 남장을 벗을 것을 권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20) <이현경전> 上 1b.

21) <이현경전> 上 2a.

만하다. 연경은 현경이 나이가 들어도 수염이 나지 않을 것이며, 취가(娶嫁)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장연과 어의가 이미 의심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천자가 알면 만조백관들이 알게 되어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들어 여화위남을 밝힐 것을 중용한다. 연경이 제시한 문제 중 특히 수염이나 취가의 문제는 여성이 남장을 하여 세상을 속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럴법한 문제들이다.

사실 <이현경전>의 장황한 신분노출담은 작품 전체의 구성면에서 볼 때 유기성, 긴밀성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감추고 있는 여성의 신분을 드러내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의 공방이 현경-유모, 현경-장연, 현경-연경, 그리고 현경 자신의 독백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동어반복처럼 느껴져 지루하기까지 하다. 그리하여 다른 여성영웅소설에서 주로 보이는 하나의 사건-부마간택이든 득병이든-이 계기가 되어 신분이 노출되는 구조에 비해 긴장감이 결여되어 오히려 작품에 대한 몰입도도 떨어진다. 이러한 점은 물론 <이현경전>이 가진 한계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초기 여성영웅소설이기에 보이는 특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관습화 되어버린 후대의 여성영웅소설과 달리 윤리적 문제, 현실적 문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고민은 <이현경전>에서 작가의 관심이 신분노출 뒤에 벌어진 사건 뿐 아니라 신분노출 그 자체에도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길게 이어지는 신분노출담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경이 '왜 다시 여성으로 복귀해야 하는가'에 대한 작가 자신의 고민의 결과이자 독자의 의문에 대한 답인 셈이다.

현경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정황들로 인해 현경은 결국 여화위남 한 것을 밝히게 된다. 이때 여성임을 밝히는 수단으로 '상표(上表)'가 제시된다. 상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과정은 <홍계월전>, <정수정전> 등 여타의 여성영웅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표(表)는 신하가 자기의 생각을 서술하여 황제에게 고하는 상주문의 일종이다. 논

간(論諫)·추천(推薦)·경하(慶賀)·위안(慰安)·진사(陳謝)·탄핵(彈劾)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이러한 표는 일종의 공적인 글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공적인 형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힘에 따라 황제의 대응 역시 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황제는 비답을 통해 현경을 질책하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하고 표창하고는 ‘청주후 검 대사마’의 인수를 돌려준다.

사실 현경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남장을 밝힌 후에 문 밖에 나서지 못하는 세속여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공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현경은 우려했던 바와 달리 황제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거의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영웅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신분이 탄로 나면서도 그 영웅성을 유지시킬 방도가 바로 상표라는 공적 행위를 통해 해결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현경이 여성으로 돌아가면서도 영웅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갈등의 단초가 마련된다.

3. 혼사갈등으로 인한 남녀이합

여성영웅소설에 있어서 남녀가 만났다가 일시적으로 이별하고, 다시 재회하는 이른바 이합구조는 작품전체의 서사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²²⁾ <이대봉전>과 <김희경전>에 있어서 남녀이합은 입신양명구조와 긴밀하게 융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남녀 주인공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고 그 와중에 여주인공은 남장을 통해 높은 지위를 획득한다. 남녀이합구조가 특히 강조된 작품에서는 남녀이합의 해결은 작품의 종결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봉빈전>에 있어서도 정혼에서 시작한 남녀이합은 작품말미에 이르러 여주인공의 신분이 노출됨과 동시에 혼인으로 마무리되며 작품 또한 종결된다.

그런데 <이현경전>에서 남녀이합은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등장하며, 특히 시가와 부부사이의 대립, 즉 혼사와 관련한 갈등으로 인하

22) 정준식, 앞의 논문; 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논문, 1986.

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사실, <이현경전>의 남녀이합은 여타의 여성영웅소설의 그것과는 변별되는 점이 많다. 애정의 성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남녀 주인공 모두가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도 않다. 현경은 냉소적이고 장연만이 몸이 달아 있는 형상이다. <이현경전>의 후반부 이야기는 오히려 <홍계월전>의 계월과 보국의 경우와 같은 부부대립담과 가깝다. 그러나 <홍계월전>과 달리 <이현경전>의 현경은 갈등의 발생과 동시에 즉시 시가, 즉 장연의 곁을 떠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현경전>에서 부부 사이의 대립과 화해는 곧 남녀의 헤어짐과 만남으로 치환되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남녀이합구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현경전>의 남녀이합은 애정의 성취가 아닌 현경 자신의 ‘영웅성 지키기’가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현경전>에 있어서 현경과 장연의 혼인은 성취 단계에서부터 녹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현경의 격렬한 반대 때문이었다. 현경의 여화위남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후 장연은 직접 구혼서를 써서 현경에게 청혼한다. 그러나 현경은 그 청을 단번에 거절한다. 심지어 천자가 직접 주혼 할 뜻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견의 소회잇서 성교를 봉형치 못흐오니 불승황공하여이다”²³⁾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 결국 현경과 장연의 혼인은 천자가 주도한 일종의 사기로 성취된다. 혼인을 결고 현경과 장연이 시 짓기 내기를 하면서 천자가 미리 장연에게 시체를 알려주고, 그 결과 장연이 내기에서 이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취된 혼인이 순탄하게 지속될 리는 없다. 문제가 불거지게 된 계기는 현경과 장연의 첩 위영과의 갈등이다. 이렇게 첩과 관련된 문제가 혼인 이후에 발생하는 구조는 <홍계월전>, <정수정전> 등과 유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첩과의 갈등은 가정·가문소설에서의 쟁총담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총담이 한 남성을 두고 벌어지는 애정의 문제이거나 혹은 가정 내에서 정실의 자

23) <이현경전> 下 23b.

리를 두고 벌어지는 주도권 싸움이라면 <이현경전>, <홍계월전>, <정수정전>에서의 갈등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남성으로서의 지위, 혹은 영웅성에 대한 훼손을 막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계월이 군법으로 첩 위영을 다스리고 현경이 적서의 분을 따져 장 30도로 운영을 다스린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라고 할 수 있다. 여주인공이 제기한 죄목이나 첩에게 내린 형벌 모두가 제가의 영역에서라기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홍계월전>에서 혼사 갈등이 군담을 통해 해결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면 <이현경전>에서는 혼사 갈등은 남녀이합이라는 새로운 삽화를 이끌어낸다. 현경이 위영을 단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영은 반성하지 않고 간부(姦夫)의 편지를 조작하여 현경을 모함한다. 시모인 여부인까지 동참해서 현경을 모해하자 결국 현경은 장연과 절연하고 본가로 돌아간다. 혼인의 성취를 이합구조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본다면, 현경이 본가로 돌아간 것은 ‘헤어짐’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에 있어서 남녀이합이 전쟁, 늑혼, 가문의 몰락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면 <이현경전>의 남녀이합은 현경 자신의 의지의 소산이다. 혼인 이후 다시 본가로 돌아가 부부의 이별을 택한 것은 다름 아니라 장부에서는 현경 자신의 영웅성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 현경이 본가에 돌아와서 위영이 보낸 자객 장후연을 징치하는 장면은 현경의 영웅적 자질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애초의 이합구조의 발생이 부부의 대립이며, 그 기저에는 현경 스스로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만남의 성취를 위해서는 현경을 설득할 것이 요구된다. 표면적 갈등의 중심이었던 위영이 천자에 의해 징치된 후, 장연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현경의 완고한 뜻을 돌리려 애쓴다. 결국 시부까지 나서서 현경에게 사죄하고 설득하자 현경은 다시 장부로 돌아간다. 다시 부부가 함께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장부로의 복귀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이합구조의 종결이라고 할 수 없다. 현경이 동침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 후 장연이 계속해서 저자세를 유지하면서 눈물로 애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니, 혼인한지 7년 만에 비로소 동침을 허락하게 된다. 자의가 아닌 혼인으로 상처 입은 현경의 영웅적 자질이 충분히 보상받은 연후에 장연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이합의 과정에서 장연은 용렬하고 비루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반면에 현경은 당당한 모습으로 장연과는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작품 후반부에 혼사 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남녀 이합의 서사는 최종적으로는 남성의 열등한 모습에 대조되는 여성의 우월한 모습을 그리는 데 긴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III. <이현경전>의 여성영웅소설사적 의미

지금까지 <이현경전>의 초기 여성영웅소설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현경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군담을 포함한 입신양명담, 다양한 각도에서의 신분노출담, 혼사갈등으로 인한 남녀이합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현경전>의 작품세계는 여성영웅소설의 사적 맥락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여성영웅소설에 있어서 핵심요소인 입신양명구조가 <이현경전>에서 본격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현경전>의 입신양명구조가 여성영웅소설사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는 <설저전>과 비교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저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초기적 면모를 확인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작품이다. <설저전>은 늑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남장을 한

여주인공 설월애가 과거에 급제하여 부친을 신원하고 그 후 여화위남을 밝히고 태자비가 된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본래 플롯이 단순하고 사건 묘사가 간략하다는 점 등으로 미완성의 작품, 여성영웅소설의 후대적 모습을 보이는 작품이라는 비교적 낮은 평가²⁴⁾를 받아왔다. 그러나 옥소 권섭의 <飜薛卿傳>이 <설저전>을 한역(漢譯)한 작품임이 밝혀지면서 <설저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게 되었다. <번설경전>의 창작연도가 1724년경이라면 당연히 <설저전>의 창작 연도 역시 17세기 말까지 소급²⁵⁾되어 여성영웅소설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현경전>은 <설저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고전 소설에서는 보기 힘든 ‘권신에 의한 겁탈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으로 거론할 수 있다. <설저전>에서 여주인공 설월애의 부친 설중은 권신 최훈이 이생의 부인을 겁탈한 사실을 알고 이를 고발하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무고를 당해 귀양을 간다. 그리고 남장을 통해 과거에 급제한 설월애가 이러한 사실을 밝혀 자신의 능력을 드러냄과 동시에 부친을 신원한다. <이현경전>에서도 역시 국구 왕세충이 유생의 처 정씨를 겁탈하고 현경이 이를 해결하는 삽화가 등장한다. 비록 가문의 몰락과 남장의 계기가 되는 것과 같이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주요한 사건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겁탈 사건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이현경전>의 작가가 <설저전> 혹은 <설저전>과 비슷한 유형의 작품을 보거나 듣고, 작품 속에 그러한 요소를 반영한 결과의 일단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24) 김기동은 ‘플롯이 비교적 단순하고 사건의 간략한 묘사로 보아 졸작’이라고 이 작품을 평가하였다(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432쪽). 그리고 임병희는 여주인공의 입신양명이 결구되어 있고 남녀의 혼사장에는 없는 점으로 미루어 비교적 후대에 발생된 여성영웅소설이라고 판단하였다(임병희, 「여성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양상」, 고려대 석사논문, 1989; 최호석, 앞의 논문 재인용).

25) 최호석, 앞의 논문, 참조.

이렇게 <이현경전>이 <설저전>과 같은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해한다면 두 작품에서 드러나는 입신양명구조의 성격은 새삼 주목할 만하다. <설저전>에서는 월애의 과거급제와 동시에 부친의 신원도 이루어지고 신분도 밝혀진다. 월애가 과거에 응시하게 된 계기는 정씨 겁탈사건의 전모를 밝혀 부친을 신원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과거 급제 후에 바로 상소를 올리고, 겁탈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월애로서는 남장을 계속할 이유도 지위가 더 높아져야 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출정입공으로 대표되는 영웅적 활약을 통한 지위 극대화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설저전>에서 입신양명이 아예 빠져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여화위남 이후에 ‘수학-과거급제’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입신양명구조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이현경전>에서는 여화위남을 통한 입신양명구조가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설저전>에서처럼 과거급제 후에 바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급제 후에 송사사건, 모반사건, 외적정벌의 과정을 거치면서 감찰원 도어사 → 순무어사 → 도원수의 단계로 차츰 지위가 높아져서 종국에는 청주후의 벼슬을 제수받는다. 무엇보다 <이현경전>에서 주목할 점은 이 과정을 통해 <설저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군담이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저전>에서는 여주인공이 문(文) 영역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비해, <이현경전>에서는 군담을 통해 문무겸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현경전>은 <설저전>에서 모색된 입신양명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켜 ‘수학-과거급제-출장입공-지위극대화’의 입신양명구조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의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로 군담의 존재 유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성영웅소설에 있어서 입신양명구조는 애초에 군담이 존재하지 않은 모습에서 <이현경전>을 통해 군담을 포함한 전형적인 과거와 출정입공을

모두 수행하는 문무겸전의 영웅 형상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갔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 장에서 확인했다시피 <이현경전>에서 비록 <설저전>에 없는 군담이 입신양명구조 속에 들어와 현경의 영웅적 자질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모습은 후대의 여성영웅소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즉, <이현경전>에서 군담이 입신양명의 과정의 하나로 비교적 담백하게 제시되었다면 후대의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입신양명의 과정을 넘어서 독자적인 흥미소로 부각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이현경전>의 이본들 사이에 나타나는 군담의 존재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비교적 후대의 이본인 1918년 간행된 활자본 <이학사전>은 필사본 <이현경전>에 비해 군담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모습을 보인다. 현경이 부모 구물 후 옥천산 금룡동 청허산인에게서 천문지리와 육도삼략, 갈 쓰는 법, 말 달리는 법을 배우고 보검을 받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²⁶⁾ 이러한 수학 대목이 후대에 간행된 활자본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군담이 초기에는 소략했다가 후대로 가면서 하나의 관습화된 흥미소로 부각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여성영웅소설에서 군담이 애초부터 완벽한 형태로 존재했다가 후대에 와서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애초에 군담이 없거나 간소했다가 차츰 그 의미가 커지는 방향으로 전개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초기 여성영웅소설에서 오히려 진전된 여성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현경전>을 통해 확인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여성영웅소설사를 논함에 있어서 여성의식이라는 막연한 기준에 따라 작품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현경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진전된 여성의식이 보이니 후대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현경전>의 창작 연대가 후대가 아닌 초기로 수정됨에 따라 이러한 관점에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

26) 이병직, 앞의 논문, 181-182쪽.

<설저전>은 여성이 단순히 화를 피하여 달아나는 소극적인 행동을 넘어 스스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부친 신원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 준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바로 여화위남을 통한 입신양명 구조의 단초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작품을 읽고 <이현경전>의 작가는 여화위남한 여성의 활약에 대해 한층 깊이 있는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민의 단서는 <설저전>에 비해서 한층 탄탄해진 입신양명구조는 물론이거니와 몇 배는 길어진 신분노출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현경전>에서 신분노출담은 지루할 정도로 장황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렇게 신분노출이 장황한 것은 현경이 지닌 영웅으로서의 자의식이 쉽사리 남장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저전>에서 여주인공 월애가 남장을 하고 과거에 응시하게 된 원동력은 다름아닌 ‘효’였다. 그렇기 때문에 월애는 효행이 충족된 이후에는 거리낌 없이 여성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현경전>에서는 <설저전>과 달리 자의에 의해 스스로 남장을 택하였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복귀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설저전>이 ‘효’라는 지극히 봉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아직 여성의 자의식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현경전>에서는 여성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고자 욕망하게 된 것이다. ‘효’라는 윤리를 전면에 내세웠던 <설저전>에 비해 그래서 <이현경전>은 문제적이다.

기존의 윤리와 관습에 대항하는 문제의식은 오히려 하나의 역사적 장르에 있어서 초기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초기의 작품이 담고 있던 문제의식은 동일한 장르의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창작되면서 유형화·관습화된 구조 속에서 매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에 있어서 신분노출담도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여성영웅소설이 본격적으로 성행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이다. 이 시기 방각본을 중심으로 소설의 상업화·대중화가 이

루어졌다. 그에 따라 여성영웅소설 역시 유형화된 관습에 따라 창작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후대의 다양한 여성영웅소설은 관습화된 몇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만 제시해도 신분노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면 <이현경전>에서는 오히려 높은 자의식을 가진 여주인공의 신분노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보이는 것이다.

한편, 여성영웅소설에 있어서 문제의식은 다름 아닌 여성의 우월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강한 초기작일수록 여성의 우월성이 강조되기 마련이다. <이현경전>은 바로 여성의 우월성을 한껏 드러내는 ‘남녀불균형의 미학’²⁷⁾을 온전히 그려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현경전>에서도 분명 남주인공이라 부를 수 있는 장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반부에 있어서 장면은 부수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많은 귀공자 중에서 그나마 현경과 재주를 겨룰 수 있는 존재라고는 하지만 그는 모든 면에서 현경에게 부족하다. 스스로도 황제에게 잡계, 사법, 검재에 있어서 모두 현경보다 모자람을 자인하고 있다.²⁸⁾ 그래도 현경의 여화위남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위엄을 가지고 있던 장면은 현경의 여화위남이 밝혀진 후에는 오히려 더욱 열등하게 그려진다.

특히 혼사갈등을 둘러싼 이합 구조에 있어서 현경과 장면은 그야말로 우월한 여성과 열등한 남성의 대결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칼을

27) 정준식은 남녀의 역할과 비중이 지나치게 여성에게 편중된 구조를 ‘남녀불균형의 미학’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용어는 앞으로 살필 뛰어난 여주인공의 활약과 그에 대조되는 용렬한 남성의 형상화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고 본다(정준식,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1집, 한국문학회, 2009, 참조).

28) 잡계스는 뉘 나흐노 장휘 이윅히 싱각하다가 부복주왈 잡계가 형경이 신도곤 썩라고 신은 둔하니이다. 상왈 스법이 엇지하노 주왈 저는 빅발빅중하고 신은 빅번 발하야 팔십여번은 맞치나니다 상이 우문왈 검지 엇더하노 디왈 신의 무는 서리갓고 형경의 무는 무지기 갓하니이다 상왈 그러면 경의 검뫼 낫도다 연왈 그러티 아니하니이다 보검이 서리갓흔 빗치 변드겨 서리 갓하나 엇지 두어즈 칼노 열길 무지기를 민들 무검을 당하리잇가 (<이현경전> 下, 22b-23a)

들고 구태여 목소리를 높이다가 하인들에게도 욕을 들어 먹고, 단 아래에 꿇어서 애걸하는 장연의 모습은 시종일관 담담한 모습을 보이는 현경과 대비되어 우습기까지 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이현경전>은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녀불균형의 미학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본연구에 따르면 초기 필사본에는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현경의 여성 의식이나 남녀불균형이 후대의 이본으로 갈수록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²⁹⁾ 이는 소설의 상품화, 대중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전에 보여준 예리한 문제의식이 오히려 독자층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누그러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현경전> 이본 사이에서 보이는 이러한 구도는 결국 여성영웅소설사 전체의 구도와도 비슷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여성영웅소설이 이러한 의식적 흐름을 보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초기 여성영웅소설에서 오히려 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녀불균형의 미학을 보인다는 점을 우리는 <이현경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결론 : 여성영웅소설 연구에 관한 문제 제기

지금까지 초기 여성영웅소설로서 <이현경전>의 성격을 살피고, 그러한 성격이 지니는 여성영웅소설사적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현경전>의 창작시기가 18세기 초까지 소급되며, 또한 이 작품이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은 바 이제 여성영웅소설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여성영웅소설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 여성영웅소설을 논하면서 ‘군담’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여

29) 이병직, 앞의 논문, 참조.

성영웅소설의 군담은 주로 영웅소설과의 관련성에서 이야기되었다. 다시 말해 영웅소설의 군담 형식이 그대로 주인공의 성별만 변한 채 여성영웅소설 속에 들어왔다고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아직 통속적 영웅소설이 등장하기 이전인 18세기 초의 작품인 <이현경전>에서 입신양명의 단계로 군담이 등장하고 있다면, 여성영웅소설 속에서 군담의 존재는 영웅소설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탄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여성영웅소설의 군담이 단순히 영웅소설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면 남성 여성이 전쟁에 나가 활약하는 군담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 그 형성문제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영웅소설의 편년을 연구할 때에 여성의식을 기준으로 작품의 선후를 논하는 관행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초기의 작품인 <이현경전>에서 오히려 우월한 여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성영웅소설이 우월한 여성을 그려내는 남녀불균형 구조에서 남녀균형의 구조로 바뀌어갔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홍계월전>만 하더라도 초기 이본에서 오히려 남녀균형의 구조가 보이고 구활자본에서는 남녀불균형의 구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녀불균형 구조가 여성영웅소설의 초기적 모습이라는 점이 <이현경전>을 통해 분명히 밝혀졌으므로, 이제 이러한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갔는가를 살피는 일 역시 여성영웅소설 연구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이현경전>에서 마련된 몇 가지 구도들이 후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현경전>은 입신양명 - 신분노출 - 남녀이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들과 그 안에서 보이는 세부적인 모티프들은 후대의 여성영웅소설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공통점을 지닌다. <이현경전>이 초기 작품임이 분명한진대 이 작품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변화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일 역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현경전>, 사재동 교수 소장 94장(사재동 A본)

- 강진욱, 「이현경전(이학사전) 연구-婦道와 자아실현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인간적 삶의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73-121쪽.
- 강화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경성대 박사논문, 2004, 47-103쪽.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432쪽
-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8쪽.
-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논문, 1986, 97-113쪽.
-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41쪽
- 사재동, 「이현경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54쪽.
- 이병직, 「<이현경전>의 이본 연구」, 『한국문학논총』 53집, 한국문학회, 2009.
- 이인경,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5, 중앙문화사, 1995.
-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310-334쪽.
- 전용문, 『한국여성영웅소설의 연구』, 목원대 출판부, 1996.
- , 「<이학사전>의 구조와 인물성격 연구」, 『고소설연구』 제3집, 한국고소설학회, 1997, 251-274쪽.
- 전이정, 「여성영웅소설 연구, - 서사 단위와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

울시립대 박사논문, 2009.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186-187쪽.

_____,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1집, 2009.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94-144쪽.

진은진, 「여성 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02, 75-81쪽.

최호석, 「<설계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83-287쪽.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LeeHyeonGyeongJeon>, an early heroine
novel

Park, Yang-R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cretely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LeeHyeonGyeongJeon>, an early heroine novel, and the significance of a heroine novel in the context of history.

<LeeHyeonGyeongJeon> is divided into three parts consisting of the story for establishing oneself in life containing military story, the story for disclosing one's identity from diverse aspects, and the story for meeting and parting between men and women due to marital conflict, which are intimately connected to one another. <LeeHyeonGyeongJeon> comprises the main character, HyeonGyeong's process of disguising herself as a man,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going to war and distinguishing herself at a battle, and maximizing her social status. Unlike the works of the later generations, the military story part is not magnified as an interesting factor but is treated lightly. In case of the heroine novels of the later generations, disclosing one's identity is presented in a unilinear mode through an event. However, in case of <LeeHyeonGyeongJeon>, it is complicated enough to be boring and forms a significant part in the whole work. This part reveals how great pains the author took about the reason for HyeonGyeong to return to a woman. While other

heroine novels, meanwhile, closely connect the description of making a contribution and the description of meeting and parting between men and women, <LeeHyeonGyeongJeon>describes the meeting and parting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latter part of the novel, substituting the story of fight between husband and wife focusing on marital conflict. Though the heroine nature of HyeonGyeong is clearly expressed through such a process, the male main character, JangYeon is described as a childish and shameful pers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LeeHyeonGyeongJeon> as a heroine novel can be found in several aspects. First, the structure of establishing oneself in life, which is a core factor in a heroine novel, was completed earnestly in <LeeHyeonGyeongJeon>. <LeeHyeonGyeongJeon>can be said to be influenced by <SeolJeoJeon>, the work of the previous times, in that the issue of committing a rape on a woman by a powerful courtier. The perfect structure of establishing oneself in life containing military story, which <SeolJeoJeon> did not have, had not shown up until <LeeHyeonGyeongJeon>was written. Second, advanced female consciousness was discovered in the early heroine novel like <LeeHyeonGyeongJeon>. Compared to the main character of <SeolJeoJeon>, who returned to the life of woman without hesitation, the main character of <LeeHyeonGyeongJeon> would not easily give up her heroine nature. This means that an earnest study was conducted on the women's sense of identity. Third, the work is noteworthy in that it is an early novel which fully describes 'the aesthetics of the imbalance between men and women'. Jang-Yeon, who is a male main character of <LeeHyeonGyeongJeon>, is dull and

inferior to Hyeon-Gyeong in all respects. Even in a face-to-fac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haracters, Hyeon-Gyeong defeats him. This suggests that the early heroine novel follow the aesthetics of the imbalance between men and women more faithfully than the works of the later generations do.

Key Words : LeeHyeonGyeongJeon, heroine novel, SeolJeoJeon, the aesthetics of the imbalance between men and women, establishing oneself in life, disclosing one's identity, meeting and parting between men and women

- 논문접수 : 2010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0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0년 4월 15일